

(주)우성산업

무사고 100일 작전 전개

(주)우성산업 부산 타이어공장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임직원의 호응아래 무사고 100일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각 부서별 및 작업장 단위별로 전개되고 있는 이 무사고 100일 작전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작업장 조건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우성산업 부산 타이어공장은 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무사고 100일을 기필코 달성함은 물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무재해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재해없는 직장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지프 랭글러, 체로키 데뷰 리셉션

(주)우성산업 크라이슬러 사업본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 호텔 리베라서울 백제홀에서 최주호 회

장, 최승진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미국 크라이슬러 존 홀콤 부사장 등 내외 축하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라이슬러의 지프 랭글러와 체로키의 한국 데뷰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의 리셉션에서는 최승진 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크라이슬러의 존 홀콤 부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우성산업과 크라이슬러 간에 기념품 교환이 있었다.

최승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크라이슬러의 우성을 통한 한국시장 진출은 국내 자동차 기술 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믿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성타이어의 대미 OEM 수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프 판매를 시발로 국내의 다목적차량 제조업체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잠재고객을 개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리셉션장에 마련된 9개의 대형 멀티스크린에는 지프의 발달사와 랭글러, 체로키에 대한 소개가 영상으로 전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KS 규격표시 허가 획득

(주)우성산업 양산 타이어공장은 '92년 11월 16일자로 공업진흥

청으로부터 양산 타이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제품(RADIAL 타이어)에 대해서 한국공업규격표시 허가를 획득하였다.

공업진흥청 허가번호 제9530호로 승인된 KS규격표시 허가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내수시장에서의 우성타이어 판매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S규격표시 허가를 획득함에 즈음하여 조달청과 승용차용 타이어 5,000본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의 계약분은 '92년 11월부터 납품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환용 타이어시장에서의 판매활로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타이어 판매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람회, 공장내 신용협동조합에 1천 4백만원 출자

(주)우성산업 양산 타이어공장의 여직원 모임인 '아람회'에서는 지난 4년전에 공장내에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자판기 수익금 1천 4백만원을 사원들의 복리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해서 써달라고 공장내 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기금으로 기탁했다.

(주) 금 호

'92 자동차경주대회 후원

우리회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 경기도 용인 자연농원내에 있는 경주장에서 개최된 "92년 한국자동차경주 챔피언쉽" 대회를 후원, 참가했다.

한국자동차연맹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총 29개팀 250여명이 참여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의 정착과 국내 모터스포츠의 활성화, 환경보호기금의 모금을 목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편 10월 10일부터 이틀동안 부산 해운대 특설경기장에서 개최된 아쿠엠펠리스 또한 우리회사가 후원하였는데, 20개팀 200여명의 레이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경주를 펼쳤다.

우리회사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호의 앞선 기술력과 제품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앞으로 이러한 자동차경주대회를 적극 후원해 나갈 계획이다.

무재해 일터 만들기 결의대회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장 "무재해운동"의 일환으로 무재해 만들기의 실천결의대회가 지난 10월 20일 9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본사 무재해운동 추진본부장인 신형인 부사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재해는 땀흘려 이룩한 경제성장을 잠식하고 아울러 근로의욕을 상실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으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현실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을 강조하며, 무재해 일터는 노사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각자의 노력에 의해 가꾸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재해를 추방하고 밝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자는 4개항의 결의문 채택에 이어 전직원은 무재해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타이어 구조해석 적용사례 발표회

지난 10월 10일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주관으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열린 '92년도 학술발표대회에서 연구1부에 근무하는 김항우 주임연구원이 "타이어 구조해석 및 당사 적용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구조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여 한국의 과학과 기술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회원과 학회관련 사업체 및 71개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특별강연이 끝난후 학회에서는 기술연구소의 깊은 관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92 소집단활동 전국대회 대상 수상

지난 10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소집단활동 전국대회에서 곡성공장 이전사추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집단활동을 통한 활력있는 직장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생산담당 김종윤 이사의 특별강연과 곡성공장의 1일 15,000본 생산량 달성의 원동력이 되었던 "소집단활동에 의한 현장개조·개선활동"을 주제로 제1회 전국계안왕을 역임한 윤생진 대리의 품질관리 소집단활동 성공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타이어제조(주)

한국타이어 새 사옥 준공

지난 '89년 10월 기공한 한국타이어 본사 새 사옥이 준공되어 지난 11월 9일 독일 BBS사를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영등포에 위치한 바이어스 타이어 제조공장내에 사옥을 두었던 한국타이어는 한국 최고의 비즈니스 거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테헤란로변에 새 사옥을 준공, 이전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TOP 7에 진입하기 위한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빌딩은 종래 기업의 경영자원이었던 인력, 자본, 설비 이외에 최근 정보가 제4의 경영자원으로 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기능·다가능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설계·준공된 지상 19층, 지하 5층 규모의 빌딩이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서는 사옥의 설계와 감리를 맡아 수준높은 빌딩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 피아건축종합건축사와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준공을 마쳐준 (주)

삼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ASA 알로이 휠 공장 준공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알로이 휠 공장이 준공되었다. 지난 11월 7일에 열렸던 준공식에는 조양래 회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들과 기술제휴업체인 독일 BBS사의 사장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날 홍건희 사장은 준공식사를 통하여 “한국타이어 전 임직원은 세계 일류수준의 타이어와 함께 세계 제1의 알로이 휠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더욱 더 안전하고 안락한 자동차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Team Building Program 실시중

한국타이어에서는 「팀빌딩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부서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타이어 고유문화정립을 위한 초기단계 프로그램으로 부서내 인간관계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의식 유도 및 부서내 문제에 대한 자율적인 진단·공유,

그리고 해결까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마음운동 전사사무국에서 주관하고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운영, 차후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전사적으로 이미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부서내 별도 책정된 '워크숍'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많아 호응도 높고 효과도 크다는 자체 평가이다.

무재해운동, 노사합심 진행

한국타이어에서는 노사가 합심하여 전사적으로 무재해 추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실시되어 금년 말인 12월 31일까지 전개될 이 운동은 환절기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극소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무재해 사업장의 건설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안전관련 과제 제안 및 표어, 포스터,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 체험수기를 공모, 시상하고 있다.